

구제역 (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

□ 가축질병(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 상황 (6.10.)

1. 구제역 신고 및 검사사항

구제역 추가신고 및 검사사항 : 없음

※ 6.10일 현재 27건 신고, 14건 양성, 13건 음성

※ 6.8일 신고된 충남 서산 성연면 한우의심축은, 6.9일 음성으로 판정

2. 주요 조치·추진사항

— 6·13 선거관련, 구제역 방역 활동 강화 지시

— 방역취약 농가를 선정 농가단위 차단방역 강화

— 우천대비 축사소독 강화 및 가축매몰지 관리철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방역관에 의한 점검활동 실시확인 철저

— 6.13지방선거 운영요원부족으로 인한 방역공백방지 촉구

— 이동통제지역내 가축수매 : 6.9 당일 수매실적 1,471두

※ 누계 : 36,258두, 경기·충북 : 30,818두 강원(철원) : 5,440두

□ 구제역 조기근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철저한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입니다.

- ▶ 농장 안·밖 주기적 소독
- ▶ 농장 출입자·출입차량 철저통제
- ▶ 가축·사료·분뇨수송차량 소독철저
- ▶ 외국인의 고용하는 농가는 소독등 방역교육 실시

2. 농장소독 절차는

— 청소 : 분변, 오줌, 사료등을 철저히 청소

구제역 발생농가 또는 의심농가는 먼저 소독

- 세척: 고압세척기로 축사·천장·벽 및 바닥 소독후 브러쉬로
분변·오물등을 깨끗이 제거
- 소독: 분무기로 소독약을 살포(즉시 세척 피할 것)
지붕·벽·바닥순서로 소독, 마른 후 가축입식
소독기간이 지난 후는 철저한 세척 실시

□ 구제역이란?

1. 정의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 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전염경로

-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등과의 접촉이나 감염
- 동물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등에 의한 전파(직접전파)
-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의사, 인공수정사등),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동물등에 의한 전파(간접접촉전파)
- 공기를 통한 전파(공기전파)이며 공기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음.

3. 증상

- 잠복기간: 2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음.
- 소의 특징적 증상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등이 나타남.
 - 발병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함.
 -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된다.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헐게 됨.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6개월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심근염에 의해 죽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심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을 호반심(tiger heart)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되기도 함.
-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뚝거리며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
- 특히 젖소에서는 착유량이 50% 정도 감소함.

— 돼지의 특징적 증상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은 절뚝거림,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님.
-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함.
- 입주변의 물집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음.

4.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황사발생, 예방접종가축의 면역소실,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태를 점검하여 방역위반농가나 추진이 부실한 지자체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소독실시,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지속적 사후관리, 소·돼지·염소 등 모니터링 혈청검사 및 예찰실시, 공·항만 검역강화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한우 씨수소 냉동정액이 공급됩니다

신규 선발 씨수소

KPN374

- 생산지 : 경북의성
- 생년월일 : 1998년 1월1일
- 등록번호 : 323608
- 혈통 :

부	KPN171	조부	KPN040
		조모	119264
모	067312	외조부	KPN015
		외조모	009428

KPN383

- 생산지 : 경남 의령
- 생년월일 : 1997년 12월 22일
- 등록번호 : 318131
- 혈통 :

부	KPN085	조부	K170
		조모	007861
모	175770	외조부	027227
		외조모	094890

KPN387

- 생산지 : 충남서산
- 생년월일 : 1998년 3월5일
- 등록번호 : 352161
- 혈통 :

부	KPN123	조부	
		조모	
모	185406	외조부	KP348
		외조모	043486

KPN388

- 생산지 : 충남서산
- 생년월일 : 1998년 3월10일
- 등록번호 : 352165
- 혈통 :

부	KPN123	조부	
		조모	
모	119096	외조부	KP285
		외조모	059005

KPN393

- 생산지 : 강원양양
- 생년월일 : 1998년 2월13일
- 등록번호 : 334724
- 혈통 :

부	KPN123	조부	
		조모	
모	120492	외조부	KPN094
		외조모	023893

KPN394

- 생산지 : 강원평창
- 생년월일 : 1998년 3월27일
- 등록번호 : 375630
- 혈통 :

부	KPN123	조부	
		조모	
모	192565	외조부	KPN079
		외조모	127500

KPN403

- 생산지 : 경남고성
- 생년월일 : 1998년 3월14일
- 등록번호 : 342165
- 혈통 :

부	KPN127	조부	
		조모	
모	214915	외조부	KPN122
		외조모	111595

KPN407

- 생산지 : 경북의성
- 생년월일 : 1998년 3월3일
- 등록번호 : 330325
- 혈통 :

부	KPN171	조부	KPN040
		조모	119264
모	099469	외조부	KPN038
		외조모	050414

KPN408

- 생산지 : 경북의성
- 생년월일 : 1998년 4월10일
- 등록번호 : 333531
- 혈통 :

부	KPN147	조부	KPN036
		조모	002569
모	148333	외조부	KPN038
		외조모	080114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 KPN244 씨수소의 냉도체중에 대한 EPD가 9.040kg이고 KPN263 씨수소는 4.408kg으로 그 차이가 4.632kg으로 KPN244 씨수소의 정액을 사용하면 KPN263 씨수소의 정액을 사용했을 때 보다 후대들의 냉도체중이 4.632kg 더 클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씨수소 내역

씨수소	생년월일	유전능력(EPD)			장 점	정액 단가 (원)
		냉도체중 (kg)	배최장근 단면적(cm ²)	근내지방도 (점)		
KPN244	94. 10. 04	9.040	2.453	0.422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3,000
KPN256	94. 11. 03	10.985	-0.656	0.478	냉도체중·근내지방도	
KPN263	95. 04. 12	4.408	2.147	0.433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KPN273	95. 08. 24	11.404	2.272	0.132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	
KPN279	95. 04. 28	9.907	1.680	0.880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KPN281	95. 03. 10	13.160	1.453	0.277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	
KPN289	95. 11. 03	5.505	0.478	0.720	냉도체중·근내지방도	
KPN310	96. 09. 18	1.915	0.589	0.654	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KPN333	97. 03. 02	8.499	3.343	0.264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	
KPN334	97. 04. 16	-2.070	0.378	1.145	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KPN336	97. 03. 01	2.050	0.981	0.734	근내지방도	
KPN338	97. 03. 10	2.116	-0.138	0.789	근내지방도	
KPN348	97. 06. 06	-0.183	0.934	1.028	근내지방도	
KPN354	97. 06. 14	3.084	1.931	0.367	배최장근단면적·등지방두께	
KPN387	98. 03. 05	3.986	3.563	0.594	배최장근단면적·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KPN388	98. 03. 10	10.842	4.504	0.472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KPN393	98. 02. 13	11.529	3.466	0.335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등지방두께	
KPN248	94. 08. 16	1.851	-0.098	0.440	근내지방도	2,500
KPN249	94. 08. 21	3.575	1.264	0.414	배최장근단면적·근내지방도	
KPN267	95. 05. 19	2.060	1.154	0.334	배최장근단면적	
KPN282	95. 05. 26	2.217	1.759	0.166	배최장근단면적·등지방두께	
KPN293	96. 02. 26	4.264	2.727	-0.168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등지방두께	
KPN305	96. 04. 08	4.512	0.919	0.456	냉도체중·근내지방도	
KPN337	97. 04. 17	-4.435	-0.537	0.929	근내지방도	
KPN364	97. 09. 04	1.936	-1.169	0.713	근내지방도	
KPN374	98. 01. 01	1.026	-0.567	0.756	근내지방도	
KPN407	98. 03. 03	0.422	1.671	0.281	배최장근단면적·등지방두께	
KPN201	92. 08. 26	-1.658	0.181	0.043	혼 용	2,000
KPN209	92. 10. 17	2.821	0.557	0.188	등지방두께	
KPN218	93. 06. 26	1.034	0.147	0.089	혼 용	
KPN291	95. 07. 03	-4.505	-0.150	0.603	근내지방도	
KPN297	96. 03. 11	6.417	4.211	-0.216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	
KPN315	96. 08. 22	0.657	-0.401	0.096	혼 용	
KPN317	96. 08. 06	3.061	0.904	-0.137	혼 용	
KPN327	97. 03. 04	-0.301	-0.258	0.296	등지방두께	
KPN341	97. 03. 15	5.401	0.549	-0.021	냉도체중	
KPN343	97. 04. 17	5.914	2.382	-0.223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등지방두께	
KPN346	97. 02. 11	3.147	1.444	-0.037	배최장근단면적	
KPN350	97. 05. 08	4.394	0.325	0.240	냉도체중	
KPN358	97. 05. 09	14.415	0.346	-0.379	냉도체중	
KPN363	97. 09. 05	5.129	-0.081	0.291	냉도체중·등지방두께	
KPN383	97. 12. 22	0.969	-0.391	0.160	혼 용	
KPN394	98. 03. 27	5.923	1.480	-0.021	냉도체중·배최장근단면적·등지방두께	
KPN403	98. 03. 01	1.263	0.595	-0.113	혼 용	
KPN408	98. 04. 10	-0.355	0.298	0.202	등지방두께	

한우안테나 - News

□ 호주정부, 생우 추석이후 수출

FIFA 월드컵 직후로 예상돼 온 호주산 산소(生牛) 수입이 오는 추석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호주정부는 오는 추석이후 한국시장에 산소를 수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지난 4일 '대한민국 산소수출에 대한 호주대사의 입장' 발표, "호주정부는 그동안 산소 수입이 한국 소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한국농가의 시각을 피하기 위해 생우수출을 오는 추석이후로 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또 "그동안 한국정부, 수입업자, 농가그룹, 한우협회 등과 건설적인 대화를 했지만 2004년까지는 수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우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호주정부로서는 계속 수출을 금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6.10) 최가수 기자】

□ 한우고급육 값 차별화 뚜렷

지난해 소값이 크게 오르면서 쇠고기 고급육의 등급간 가격차가 크게 좁혀졌던 것이 지난해 11월이후 소값이 떨어지면서 쇠고기 고급육 가격의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소 도체 1+등급 평균가격은 kg당 1만3천6백48원, 1등급은 1만2천6백99원으로 산지가인 1만7백32원과 각각 2천9백16원과 1천9백67원씩의 큰 가격차를 보여 고급육에 대한 가격의 차별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고급육과 일반 중등육과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은 지난 연말과 올 상반기 쇠고기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품질 차별화가 뚜렷한 고급육은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낮은 등급은 저가의 수입육과의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현재 해외 쇠고기 물량이 일본의 광우병 파동 등으로 과잉 상태여서 현지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신문(6. 8)】

□ 최초발생농장 반경 10km내 구제역 의심축 무조건 살처분

농림부는 일요일인 5월19일에 이어 21일에도 가축방역중앙협의회 소위원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 현상환 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최초 발생농장인 울곡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경계지역·이동

제한지역) 내에서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만 들어오면 결과에 관계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무조건 살처분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보다 확실한 확산 방지책인 살처분 정책을 한차원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으로 신고접수 후 간이진단 키트 검사에서 정밀검사까지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혹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아예 이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경계지역(이동제한지역)내에서의 우제류 가축 수매도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가 농가현장을 방문,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를 실시함으로써 적체 물량을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축산신문(5.24)】

□ 농축산자금 금리인하

오는 7월 1일부터는 농축산정책자금과 축발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사업중 5%인 사업에 한해 금리 이자율이 1% 포인트 인하된다.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2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산층 육성 및 서민 생활향상 대책회의에서 '당면 농가 경제안정 및 복지증진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이자율 5%로 운영중인 후계농업인육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계열화, 송아지생산기지 등 농축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과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이 농가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업계 고교생 자녀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교생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농어촌출신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금액을 학기당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원대상도 1만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축산신문 (5.24)김영란 기자】

□ 구제역 발생-방역 이모저모

-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수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림부는 도축장 등을 추가 지정. 이에 따라 도축장은 현재 1곳에서 3곳, 육가공공장은 4곳에서 7곳을 지정.
- 농림부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은 각 시·도, 농협중앙회 및 생산자단체에 축산농가가 구제역 발생농장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농장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줄 것을 21일 재요청.
- 농림부는 21일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을 전국 시·도 및 관련단체에 시달. 이 지침은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분확인·방역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위생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은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기예보에 촉각. 방역관계자들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이 25℃ 이상, 상대습도 60% 미만일 때 빠르게 죽는다"며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도록 하늘에 제사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 운영중인 역학조사팀과는 별도로 18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할 역학조사위원회(위원장 김순재 건국대 명예교수)를 구성하고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수, 김건태 양돈회장을 비롯 학계와 검역원 관계자 14명을 선임. 위원회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외에 우역·우폐역과 제1종 가축전염병 중 농림부장관이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

【농민신문 (5.24)홍경진·김태역기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달 연장

구제역 발생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5월말로 종료키로 했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기간을 6월30일까지 한달간 연장했다.

농협중앙회 한우낙농부는 지난 20일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방문 중단등 계약체결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관련농가나 일선축협에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올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12만3천1백12명의 농가가 참여했다. 계약암소는 45만6천9백81두로 올해 계약 목표인 40만두를 이미 넘어섰다

【축산신문 (5.24)】

□ "호주산 생우 수입 추진 한우산업 붕괴 노림수"

호주산 생우 수입을 놓고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는 18일 호주산 생우 수입 관련, 농업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회사인 (주)한국영농법인 축산물수출입사업단을 중심으로 월드컵이 끝난 직후인 7월부터 호주산 생우 수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병룡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6월 안으로 호주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호주산 생우를 수입할 것"이라며 "이 생우들을 축산물수출입사업단에 소속된 한우 농가들에 한마리당 7만원씩의 수수료를 주고 위탁 사육, 자체 판매 체인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영농법인중앙연합회의 생우 수입은 명백한 한우산업의 붕괴를 노린 행위"라고 비난하고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 영농법인중앙연합회 제명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부장은 "한우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우를 수입하려는 것은 국내의 열악한 쇠고기 유통환경을 악용해 둔갑판매 등으로 불법적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라며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생우 수입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한우산업이 안정될 때까지 생우 수입 시기에 대해 호주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한우만만운동 등을 전개해 무리한 생우 수입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5.22)】

□ "농민단체협의회 정관 위배한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제재해야"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는 지난 16일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전국농민

단체협의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우협회는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가 농민단체로서 생우 수입업자를 끌어안고 생우를 직접 수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단체장 회의를 통해 농민단체협의회와의 정관에 위해되는 처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생우수입을 막은데 이어 올해의 생우 수입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호주측과 직접 접촉하고 있으며 생우 수입의 지연으로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는 이런 한우협회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활동을 펼쳐 호주 등 생우 수출국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5.24 광동신기자】

□ 한우 월드컵 전통문화행사에 나간다

한우가 FIFA월드컵 공식 전통문화행사에 나선다.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시가 월드컵 상암경기장내 평화의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2002월드컵 서울플라자 행사’에 참가해 매일 한우 우마차를 5~7대 운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이를 위해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고구려시대 우마차’ ‘4발마차’ ‘2발마차’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우마차 복원에 들어갔으며, 우마차를 끌 한우는 홍천군지부와 재천시지부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한우고기 시식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를 지속하고 한우에 대한 도시민의 정서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5.22) 최기수 기자】

□ 화우 최상등급과 대등한 한우 최고급육이 나왔다.

홍천 ‘늘푸름한우’ 회원인 허주영 대표(한우리영농법인)가 출하한 거세우가 등급판정 결과 A1+(마블링 7++)등급과 등심단면적 1백31cm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였다.

화제의 소를 직접 등급판정 한 남건 판정사(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지소)는 “이번 소는 육질을 판정하는 마블링스코어가 국내 최고인 7++으로 화우의 최상등급인 5등급 이상의 수준이며 특히 배최장근단면적이 131cm²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성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마블링스코어가 7++라는 것은 1~7번(1번 3등급, 2~3번 2등급, 4~5번 1등급, 6번이상 1+등급)까지 나누고 각번호를 다시 0, +, ++로 더 나누어 모두 21가지로 세분한 마블링스코어 중 최고로 높은 것이다.

또한 배최장근단면적이 1백31cm²이라는 것은 지난해 개최된 최고의 한우를 뽑는 제5회「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된 2백64두의 배최장근단면적 평균이 82.96cm²였고 최고가 1백13cm²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놀라운 성적이다.

화제의 소를 생산한 허대표는 “이번에 3두를 출하했는데 모두 A1+등급이 나왔고 특히 이중에 육질이 아주

뛰어난 소가 나와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하고 “육질등급이 이처럼 잘 나오는 것은 육성우기때 옥수수 등 조사료를 충분히 주고 비육기에는 알코올발효사료 급여한 덕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거세우 20두를 출하했는데 놀랍게도 A1+가 18두, B1+가 2두 등 모두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축산신문(5.20)곽동신 기자]

□ 5.0MHz 초음파진단기 번식질환 예방에도 유용

초음파진단기가 소 임신진단을 비롯 산과질환 예방과 한우육질진단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장비로 굳혀지고 있는 가운데 번식산과 질환에 적합한 초음파진단기는 5.0MHz, 탐촉자 길이는 4~5cm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기관 차원에서 초음파진단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 축산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동도바이오텍(대표 김중구)이 지난 13일 서울 파레스호텔 12층 카네이션홀에서 개최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초음파진단기기의 활용」을 워크숍에서 제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전남대 수의학과 손창호교수는 “번식산과 질환 진단기는 3.5MHz, 탐촉자길이 17cm는 부적당하고 5.0MHz와 4~5cm가 가장 좋다”고 말하고 “일부에서 권장중인 탐촉자는 육질과 임신진단을 동시에 하는 겸용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괜찮게 들릴지 모르나 길이가 큰 탐촉자로 번식산과질환 관계를 진단키 위해 직장에 넣을 경우 한우는 직장벽이 좁기 때문에 고무풍선 터지듯 직장벽이 파열되며 정확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강원대 동물자원과학대학 송영한교수는 “초음파진단기에 대한 관심이 양축농가들 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교육이 확대 요청되고 있다”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이론·실습을 병행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생체상태 한우의 육질·육량을 진단기로 측정하여 6두이상을 맞추는 교육생에게는 국가기관 차원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초음파진단기를 통한 축산업 발전을 한층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축산신문(5.20)]

□ 상습적으로 소독 게을리 하는 농가 처벌 강화된다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소독을 게을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형사처벌과 과태료도 상향조정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무과실책임주의를 명시, 가축질병책임보험도 도입된다.

김 장관은 또 살처분 정책이 구제역 조기 근절의 확실한 방법인 만큼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되, 여기저기서 발생할 경우에는 백신할 준비도 해야 된다며 구제역이 확산되면 백신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방역청’ 신설과 관련, 신설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군에 방역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 데다 농민들의 방역의식도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에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임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구제역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구 28개 시·군을 정해 감시활동도 하고 있음을 덧붙혔다.

[축산신문(5.17)김영관 기자]

□ 쇠고기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안돼

“쇠고기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허용을 적극 반대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는 “실은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쇠고기 등 육류는 식육업소에서 냉장육으로 유통시키다가 유통기간 만기일인 3개월 직전에 다시 냉동시켜 냉동육으로 판매할 경우 위생상 안전성에 문제를 유발시켜 소비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상쇄하고 철저한 대책마련도 없이 단지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라는 표시만을 통해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전체쇠고기(한우고기 포함)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쇠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자인 축산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5.17)곽동신 기자]

□ 우시장 재개장때까지 문전거래 자제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의 1백6개 가축시장이 잠정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한우농가들은 소의 구매와 판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우 농가들은 우시장 폐쇄로 밀소와 소의 거래가 제한돼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시장이 아닌 문전거래로 소를 사고 팔 경우 소값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고정 거래처도 아닌 경우 두당 5~10만원 이상 손해를 보기 십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의 우시장을 통해 월 6만여 두가 거래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피해액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우 농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우시장 폐쇄는 당연한 조치이나 조기에 재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과 문전거래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준가격 제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5.17)]

□ ‘만만운동’ 한달만에 5천만원 넘어

‘한우만만운동’이 성금모금 1개월만에 5천만원을 넘어서며 축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우리 한우를 지키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한우만만운동’이 대구시 컨벤션센터에서의 한우지킴이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한데 이어 전국의 한우농가들과 관련업계,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매주 1천만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발생이후 ‘한우만만운동’이 구제역 조기근절에 앞장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금액이 더욱 늘고 있다.

성금액은 개인적으로 1만원에서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백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단체를 통해 성금을 모아서 내는 경우도 있다.

그 동안 ‘한우만만운동’에 참여한 분들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업계에서 (사)대한양돈협회, (사)한국종축개발

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천하제일사료, 대상사료, C&C푸드시스템, 동아푸드콤, 상일테크, 새덕산업, (주) D&A, (주)선농발효, 솔피동물약품, (주)동도바이오텍, 농협 한우낙농부 등이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소장 외 122명의 임직원 전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합에서는 황금영 순천축협조합장, 윤두현 이천축협조합장, 장성운 전북한우조합장, 장흥농협, 장흥유치농협, 장흥관산농협, 장흥안양농협, 장흥칠량농협, 장흥축협, 장동농협, 장평농협, 흥성축협 등이며 학계에서는 전북대 백동훈 교수가 참여했다.

한우협회에서는 이규석 회장과 강성원 명예회장, 김상준 전북도지회장, 남호경 경북도지회장, 임경철 경남도지회장, 김용제 충남도지회장, 울산시지부, 익산시지부장, 원주시지부장, 남양주시지부, 안동시지부, 양주골한우회, 논산시지부, 삼척시지부, 홍천시지부, 횡성시지부, 남양주시지부, 이천시지부, 포천시지부, 김해시지부, 남해시지부, 김천시지부, 김제시지부, 대구시지부, 영주시지부, 고성시지부, 남원시지부, 장흥시지부, 정읍시지부, 서산시지부, 보령시지부, 홍성시지부, 옥천시지부, 경주시지부 등이다.

전국의 주요 가축시장인 고성가축시장과 옥천가축시장, 횡성가축시장, 남원가축시장, 화성가축시장, 장성가축시장, 광천우시장 등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축산신문(5.14)】

□ 한우협 “냉장육 냉동 유통 허용 반대”

정부가 냉장육을 얼려 냉동육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자 한우협회가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유통시킬 경우 이같은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개정(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각각 입안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는 지난 9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 유통허용은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자인 축산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5.13) 최가수 기자】

□ 호주산 생우 95%이상 3등급

호주산 생우의 도축결과 95%이상 3등급인데다 경락가격도 육우보다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수입된 호주산 생우 중 등급판정된 1천2백99두의 성적은 B2등급이 3두, C2등급이 4두, A3등급이 2백57두, B3등급이 8백57두, C3등급이 1백76두, 등의 2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기간별 성적은 ▲1차 수입분(4월 16일 도착) 중 6월4일에서 14일 사이(평균 55일 비육)에 도축된 2백88두의 출하성적은 생체중이 평균 4백57kg이고 지육중량은 평균 2백61kg이며 육질등급은 A3등급이 1백82두 B3등급이 1백6두로 모두 3등급이 나왔다. 7월 17일에서 8월 30일 사이(평균 114일 비육)에 도축된 82두는 생체중

평균이 5백8kg이고 지육중량은 평균 3백88kg이며 육질등급은 A3등급이 15두 B3등급이 66두, 등위 1두로 나왔다. 10월 24일에서 12월 20일 사이(평균 2백19일 비육)에 도축된 2백72두의 출하성적은 생체중이 평균 6백47kg이고 지육중량은 평균 3백88kg이며 육질등급은 A3등급이 5두, B2등급이 1두, B3등급이 94두, C2등급이 4두, C3등급이 1백68두로 나타났다.

▲2차 수입분(5월 20일 도착) 6백57두는 7월 19일에서 8월 15일 사이(평균 73일 비육)에 도축되었으며 생체중 평균은 4백64kg이며 지육중량 평균은 2백64kg, 육질등급은 A3등급이 55두 B2등급이 2두, B3등급이 5백91두, C3등급이 8두, 등위가 1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평균 경락가격은 B2등급은 kg당 5천3백74원, C2등급은 kg당 6천99원, A3등급은 3천5백93원, B3등급은 4천1백52원, C3등급은 6천2백93원에 경락돼 육우(젖소 수소)의 같은 등급보다도 낮게 경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비육될 경우 국내산 육우로 인정되더라도 소매단계에서는 국내산 육우(호주산)이라고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체량은 국내 비육 55일부터 114일까지 4백57kg에서 5백8kg으로 51kg(59일간)이 증체돼 1일 증체량은 0.86kg이었으며 219일까지는 6백47kg으로 1백90kg(164일간)이 증체돼 1일 증체량이 1.15kg으로 육우의 일당 증체량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신문(5.4)곽동신기자】

□ <인터뷰>남호경 한우 지키기 만만운동 추진본부장

“한우사육농가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고 한우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호주산 생우 수입저지 활동과 한우농가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 지키기 만만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한우 지키기 만만운동 추진본부장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한우마리수가 가장 많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시장에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한우농가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며 “조만간 분위기가 한우산업 저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우협회는 만만운동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지회별로 지난 23일 경기 오산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가축시장에서 홍보행사에 들어갔다.

“농가들이 생우 수입저지라면 서명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 본부장은 “의약분업시 의사와 약사들의 생존권 투쟁에 비하면 한우농가들의 수입생우 저지투쟁은 아무 것도 아니다”며 수입생우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주한 호주대사가 조그마한 한우협회를 왜 두번씩이나 방문했겠습니까? 자국 소사육농가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부를 어떻게 봅니까? 대안이 없다며 받아들이지는 분위기로 비애를 느낍니다.”

그는 농가보호를 위한 양국의 극명한 시각차이를 이같이 지적하고 “한우 지키기 만만운동을 통해 한우살리기 의식이 지역축협과 농협, 영세농가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4.24)최기수 기자】